예쁜 포학함을 경계하라

(스가랴 9장 1절~17절)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학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쁜 포학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쁜 포학함을 경계하라'
"예쁘다"라는 말을 새삼스럽지만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대표적 뜻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는 자꾸만 눈이 갑니다. 또 보고 있는 동안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끌리는 상태를 반영한 단어가 바로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보자면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포학하다"라는 말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뜻으로써 예쁘다는 말과는 상반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포학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포학한 자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앗수르나 남 왕국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약소국을 점령할 때에 그 모습이 무척 잔혹했습니다. 점령지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쳐서 죽이고 산모의 배를 가르는 등의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한 행위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앗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포학함을 상징으로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쁨과 포악함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2장 4절을 보면 "소년"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소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르"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로부터 20세까지의 남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젊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에 맞추어 생각해보면 부모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던 중에 태어났으리라 추측됩니다.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사로잡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스가랴 선지자는 신앙적 생각들을 주장할 때에 핵심 단어로 포로를 사용했습니다. 포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선민들의 관계와 삶에 대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쁨과 포학한 자를 연결시키는 개념 또한 바로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사건은 선민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포로 된 상태를 비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선민이란 단순히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나 교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민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거처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이 선민 됨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거처로 삼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대상들에 의해 포로 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선민들은 마음이 세상에 포로 된 상태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바벨론에 의해 선민들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선민의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앗수르 같은 적의 군대가 포학한 자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민의 마음을 점령한 대상이 바로 포학한 자가 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선민들이 예쁘게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예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포학한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땅에 머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앗수르가 선민을 포로로 잡았던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이 땅에 묶어놓는 대상들은 대부분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예쁜 것들입니다.
선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모든 예쁜 것들은 그 속에 포학함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일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선민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지고 전염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민들은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의 거처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땅에 포로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포로된 이유는 그 대상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좋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에는 바벨론과 앗수르 군대가 상징하는 포악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인 성 과부를 예로 들어봅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과부 자신의 몸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아들을 바벨론의 군대가 바위에 내리쳐서 죽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사정없이 없애버린 이 일은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로 이렇게 귀하고 예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하나님께 포학한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인 성 과부가 자신의 몸보다도 아들을 귀하게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예쁘게 여겨지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빼앗아가고 없애버리는 잔인하고 참혹한 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었다면 잔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고 부도처리 되게 방치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잔인한 처사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포학한 자가 보이는 잔인함과 참혹함이란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쁘고 아름답고 좋아서 마음을 빼앗겼다면 어땠을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 너무나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삭은 앗수르와 바벨론 군대 같이 잔혹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나인 성 과부의 외아들처럼, 사장님이 평생을 일궈온 사업처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축구선수에게는 다리가 생명이고 성악가에게는 성대가 생명이듯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대상들이 하나님께는 포악한 자가 됩니다. 자녀가 소중하고 예쁘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긴다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찢어내고 하나님을 내버리게 만드는 포학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로로 만드는 세상의 예쁜 것들은 성악가에게서 성대를 잘라내고 축구선수에게서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포학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모든 인간에게 생명이 되시고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사정없이 빼앗아 가는 모든 적들은 우리 마음에 예쁘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대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

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7절에서는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양상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포로 될 때에 나타나는 양상에는 선민이고 이방인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혜 찾기, 요새의 건축, 금과 은을 쌓기의 세 가지 증상을 통해 마음이 세상에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들의 경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선민들의 죄악을 무수히 경고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민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힌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자녀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애인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로잡혀있는 상태 자체를 문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은 세상은 예쁘고 아름답고 좋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찾기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세상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관찰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자기계발서를 뒤지고 지혜 있다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로잡혔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벨론과 앗수르 군대 같은 포학한 자들에 의해서 사정없이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에게서 성대를 제거하고 축구선수에게서 다리를 제거하듯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제거 당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스스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고 답을 찾으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요새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제거되어 버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향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은 공무원 시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시장에서는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것을 최고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안정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됨을 추구하게 된 이유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포함하여 모든 안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사정없이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성도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지혜를 찾거나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요새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십 년 광야생활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유일한 보장과 안정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선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예쁜 대상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잔인하게 빼앗긴 자들은 반드시 요새를 건축하듯이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직장문제 외에도 연금이나 노후대책 혹은 보험 같은 것들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보니 연금이 주어질 수도 있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포학한 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마구잡이로 포로취급 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금과 은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는 단순히 그들만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 가짜 가치들을 좇으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치에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선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기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 포로 된 자들은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이란 바로 선민과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포로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예쁘게 여겨지는 포학한 자들에 의해서 포로취급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학한 자들이 선민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과 교인들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영을 쌓겠다고 하십니다. 그 진영이 바로 9절에서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언급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늘로 향하는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만드신 진영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공간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해주셨고 또한 성전 의미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탈출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는 모든 길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일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할 때에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진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간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쁘게 여기는 대상들에는 포학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포학함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찢어 없애버리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참혹함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과 외모,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 등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는 포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 포로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드릴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가족을 포학한 자로 여기라니 너무도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고사리 같은 손도 예쁘고 웃는 얼굴도 예쁘고 우는 얼굴도 예쁩니다. 똥오줌까지 더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어떻게 포학한 자로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너머로 마음 보내는 것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쁨과 만족을 얻은 뒤에 그 기쁨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고 친구를 만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자녀를 보면 위안을 받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자녀를 삶의 위로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녀는 결코 나의 삶에 위로를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에게로 하늘의 기쁨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애인에게 사로잡혀서 기쁨을 구하게 된다면 애인은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는 포학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애인이든 자녀든 이들을 포학한 자로 만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학한 자들처럼 날렵하고 강인한 준마를 타고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포학한 자들과 반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해방의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만드신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무엇을 예쁘게 보든지 마음으로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을 등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원수나 문제가 마음을 붙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 또한 예쁜 존재입니다. 원수가 없어지는 상황을 예쁘다 여기며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대상들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등진 세상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그러합니다. 포학한 자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시 할 것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포로로 삼는 포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둘러치신 진영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도했던 백 가지 천 가지 일보다 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어떤 대상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등을 돌림으로써 우리 마음은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등 돌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 안기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하루 종일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